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7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市 政 報 告

-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,
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.

- 시민을 대표하는 이곳, 의회에서
첫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
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-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
행복하게 해달라는 시민의 여망에 따라
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어달리는 육상경기의
계주 선수처럼 서로 같은 호흡으로 일해 나가길
바라마지 않습니다.

- 그럼, 시정보고에 앞서
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- ▶ 조명우 행정부시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강태석 인천소방본부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오병집 안전행정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김장근 보건복지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방운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조영근 환경녹지국장입니다. (인사)

- ▶ 김상섭 항만공항해양국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입니다. (인사)

- ▶ 성문옥 감사관입니다. (인사)
- ▶ 조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. (인사)
- ▶ 정연용 교육기획관입니다. (인사)

- ▶ 김상길 인재개발원장입니다. (인사)
- ▶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. (인사)

- ▶ 김진용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이승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오호균 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. (인사)

- ▶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. (인사)
- ▶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. (인사)

-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
 -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!
 - 저와 우리 시는 인천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,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.
 -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,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인천의 희망과 비전을 더해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.
- 첫째, 인천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시청은 물론,
각급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
꼼꼼히 살피는 실태진단을 통해,
이를 향후 정책추진의 밑거름으로 삼아
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.

- 둘째, 이제 70여일을 남긴
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
새로운 인천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이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
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.

- 특히,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,
시설물 보강은 물론,
관람객의 작은 동선 하나하나까지
면밀히 살피겠습니다.

-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이
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더불어

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
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.

- 셋째, 인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
도시가치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.
이를 위해서는 인천이 편리하고 효율적인
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.
- 인천發 KTX, 인천지하철 2호선,
제3연륙교 등 입체교통망의 완성과
각종 도시기반 시설을
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.
- 또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
적극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인천 발전의
경쟁력이 되도록 재조명하겠습니다.
- 넷째,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
국내·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

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,
침체된 시장경제를 되살려
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겠습니다.

-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!

- 앞으로 저와 우리 시 모든 공무원은
시장을 위해서, 또 조직을 위해서
일하지 않을 것입니다.
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만을 위할 것입니다.

- 또, 계획과 보고에 치우치지 않고
행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춰
현장중심, 시민중심으로 일해 나갈 것입니다.

- 그리고, 개인의 작은 부정·부패가
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
우리 시 전체를 무너뜨리고,

시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허무는 행위임을 명심하고, 청렴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.

- 저 역시 시장으로서,
모든 판단을 합리적이고 사심 없이
결정하겠습니다.
오로지 새로운 인천과 행복한 시민만을 위한
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.
-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!
- 우리는 인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
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- 그러나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,
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.
- 여러분과 저는 인천발전을 위한
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로써

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
시정을 꾸려가야 합니다.

-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
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
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저와 우리 시 역시, 시민과 의원 분들의
높은 기대에 부응하는
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.

- 다시 한 번 인천시와
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의
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
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
전승하시길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4. 7. 3.

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